

여권 “수도권 규제완화” 갈수록 노골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뭉친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법률 제정 저지

새정부의 ‘선(先) 지역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일부 수도권 단체장들의 도를 넘어선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이 노골화되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도권 단체장들의 수도권 완화 추구에 맞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는 등 수도권·비수도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26일 의정부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군사시설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에서 조금 떠드니 잘 나

가다 멈춰버리고 있다”며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지역간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여당내 중진의원까지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과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30년 동안 묶여있던 규제를 새정부에서 단칼에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중진인 이상득 의원과

전남 한나라당 경기도당을 방문해 ‘수도권 규제 철폐 요구’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등 수도권 단체장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호응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강남구상공회 초청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서울이 발전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하향 평준화로 폄하했다.

이같은 ‘반 지역균형발전’ 움직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협의체와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비수도권 13개 자치단체·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제를 유지,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 제정 등을 막기로 했다.

또 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개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촉구하는 순회토론회

와 규탄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25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수도권정책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고 김 지사와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공동 대응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과밀 반대 전국 연대 등과 함께 10월 중으로 1만여명이 참여하는 ‘비수도권 2천500만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서울광장 메운 ‘성난 佛心’ 27일 오후 정부의 ‘종교 편향’에 항의하기 위해 열린 ‘범불교도대회’에 참석한 승려와 신도 등 불교인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범불교도 대회 수십만명 운집 “종교차별 사과하라” 거리행진

이명박 정부의 종교적 편향에 항의하는 불교계의 대규모 집회가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오후 2시에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스님과 불교신도 15만여명(경찰추산 6만명)이 참석한 ‘헌법과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사과, 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 공직자의 종교차별 금지법 제도와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서울광장과 프라자호텔 앞길은 물론 덕수궁 앞 태평로 전차로를 가득 채우고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며 조계사까지 도

로 행진에 나섰다.

이날 범불교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자들의 종교차별 사태와 대통령의 방조로 헌법이 훼손되고 국민화합이 저지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경찰청장 등 종교차별 공직자를 즉각 파면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별 범불교대회로 항거를 확산하고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특명! 유명 미술인들 먼저 모셔라”

광주·부산 비엔날레 동시 개막 ... 치열한 신경전

광주비엔날레재단과 부산비엔날레재단이 때아닌 미술계 인사 모시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와 제5회 부산비엔날레(9월6일~11월15일)가 하루 간격으로 열리는 바람에 프레스 오픈, 개막식에 초청할 미술계 인사를 선정

하기 위해 치열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계 인사 유치전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에 있는 쪽은 광주비엔날레재단이다. 광주에선 4일 오후 2시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국내외 미술평론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프레스 오픈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신문, 방송, 미술 전문잡지 기자 100명, 뉴욕타임스, 산케이신문 등 해외 언론인 20명, 국내외 유명 미술평론가 50여명 등 170명이 초대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이들이 개막식 행사는 물론 부대 이벤트 등에도 참석해 최대한 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도록 2~3일동안 광주에 묶어

둔다는 복안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올 가을 아시아지역에서 열리는 10여개의 국제미술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막되는 만큼 이들 미술계 인사들을 광주비엔날레의 홍보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비엔날레재단은 이를 지원하는 기간 만큼 광주에서 머물 수 있도록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무한 서비스’를 마련했다. 비엔날레 메인 전시 가운데 하나인 5·18광주민주항쟁을 재현한 ‘제안(Position papers)’ 색션의 ‘봄’ 퍼포먼스도 개막일인 5일 오후 7시에 열기로 했다.

이는 프레스오픈 참석자들이 5일 오전 10시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

는 개막식에 참석한 다음 광주를 떠나지 못하도록 퍼포먼스를 저녁시간에 배치한 것이다.

이같은 재단의 ‘시간끌기 전략’에 부산비엔날레재단도 ‘이동버스 투어’라는 맞불작전을 내놓았다. 부산비엔날레재단은 6일 부산시립미술관에서 프레스오픈(오전 10시)과 개막식(오후 5시)을 열기로 하고 대대적인 미술계 손님 유치에 나섰다. 광주 행사에 참석한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와 미술계 인사들의 이탈을 막고 가능한 빨리 부산으로 ‘모셔가기’ 위해 버스를 직접 대절해 부산비엔날레로 이동시키겠다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관계자는 “올해 비엔날레는 광주와 부산에서 거의 동시에 개막되기 때문에 관람객 유치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두 지역의 비엔날레가 상호 공존하기 위해 앞으로 개최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U대회 재도전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재도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광주시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27일 제 173회 임시회에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재도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그동안 토론회 등을 통해 U대회 재도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역 체육계는 물론 경제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등 각 계에서 재도전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결의안 채택 배경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여론을 수렴하고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광주시에 재도전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U대회는 광주역의 역점 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제무대에 광주를 알려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2015 하계 U대회 광주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U대회 추진 ▲대회 유치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추진 등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박광대 광주시장은 “지역 원로와 종교·언론·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재도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유망직업 전망 55년 역사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EYNASTY
19th Anniversary Exhibition
19th Anniversary Exhibition

2008. 09. 01 ~ 2008. 09. 30

내용: 민속놀이 3종, 민속놀이 3종

구분	장소	시간	유치인원
민속놀이 3종	12월 12일 10:00 ~ 12월 12일 10:00	10:00 ~ 12:00	100명

민속놀이 3종

2008. 09. 01 ~ 2008. 09. 30

내용: 민속놀이 3종, 민속놀이 3종

장소: 12월 12일 10:00 ~ 12월 12일 10:00

민속놀이 3종

2008. 09. 01 ~ 2008. 09. 30

내용: 민속놀이 3종, 민속놀이 3종

장소: 12월 12일 10:00 ~ 12월 12일 10:00